

# 산사에 시름 내려놓고 가세요

## 2010 내 나라 여행 박람회



“절에 가면 단청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랬을까’ 하면서 신기했는데, 제 손으로 직접 그리니 뿌듯해요. 집에 걸어 놓으면 당장이라도 우리 집이 고요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2010 내 나라 여행 박람회” 마지막 날인 1월 30일, 행사가 열리는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 때 아닌 여름이 찾아온 듯 봉사자들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사람들은 ‘보물찾기’ 하는 아이처럼 뒤꿈치를 들어가며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곳곳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행사장 부스 중 기와지붕이 유독 눈에 띈다. 산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홍보관에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템플스테이’의 맛보기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OECD가 인정한 ‘성공적 문화상품’답게 사람들은 템플스테이 홍보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봉사자와 스님들은 넘치는 인파속에서 동분서주하며 방문객을 맞이하기에 바쁜 잔칫집 분위기였다.

사람은 드물다”며 “차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요하고 사색적인 맛을 느끼며 내면을 채울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컵등 만들기의 재미에 푹 빠진 박은아(18·삼성동) 학생은 “템플스테이를 체험해본 적은 없는데, 절에 가게 된다면 스님들과 차도 마시고, 명상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2010 내 나라 여행 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내 나라 숨은 보물찾기’를 주제로 국내관광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리나라 곳곳에 숨은 명소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린 것은 ‘템플스테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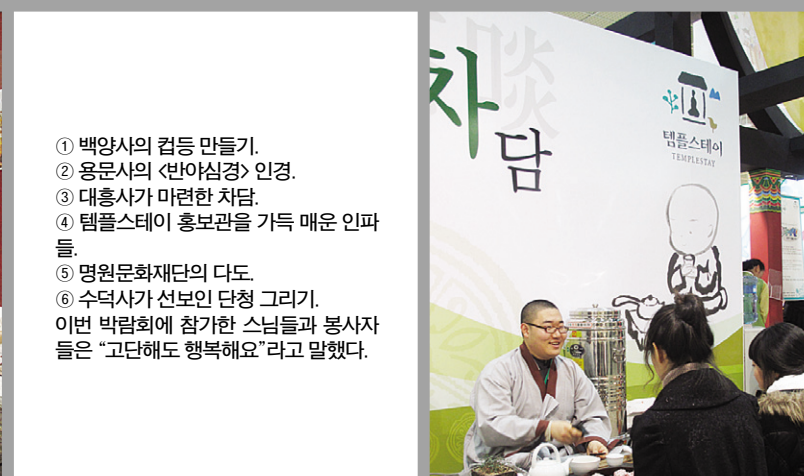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홍보관이 ‘최우수 이벤트상’을 수상했다.

### 내 나라 여행 박람회 최고 인기 부스 ‘템플스테이’

#### 일회성 홍보 아닌 템플스테이 활로 모색해야



- 1 백양사의 컵등 만들기.
  - 2 용문사의 <반야심경> 인경.
  - 3 대홍사가 마련한 차담.
  - 4 템플스테이 홍보관을 가득 매운 인파들.
  - 5 명원문화재단의 다도.
  - 6 수덕사가 선보인 단청 그리기.
-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스님들과 봉사자들은 “고단해도 행복해요”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중훈)은 금산사 대홍사 묘각사 법흥사 봉은사 삼화사 송광사 심향사 쌍봉사 영평사 용문사 전등사 화엄사 등 각 사찰에서 온 스님, 봉사자와 함께 템플스테이 홍보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특히 다도, 오방색 다식체험, 컵등 만들기, 연꽃·단청그리기, 꽃 누르미, 차담 등에도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 푹 빠져있었다. 부스마다 누르고 붙이고 자르고 칠하는 참가자들 틈을 지나치던 사람들도 ‘다도’ 현장만은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한복보다 더 고운 미소를 머금고 ‘다도’를 지도하는 명원문화재단(회장 김의정) 봉사자들은 차(茶) 예절을 일러주며 방문객에게 차를 대접했다.

“양손을 찻잔에 대고 얼굴을 향해 들면서 왼손을 잔 아래에 대고 오른손으로 잔을 감싸줍니다. 이때 왼손은 꽃봉오리처럼 하고 양팔은 날개를 펼치듯 합니다. 먼저 차(茶) 향을 음미합니다. 한 번 마시고 옆 사람과 차담을 나누고, 두 모음을 마시고 차를 입안에서 굴리면서 맛을 느낍니다. 세 모금 짜 차를 다 마신 후에는 차를 대접한 사람에게 ‘차(茶) 맛이 참 좋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야 해요.”

봉사자의 지도에 따라 차를 마시던 강현아(10·서울 서초동) 학생은 차의 떫은맛에 얼굴을 찌푸리더니, 다식을 입에 넣어주자 금방 얼굴색이 돌아왔다.

명원문화재단 이복형 경기북부지부 회장은 “차는 어디서나 맛볼 수 있지만, 차를 제대로 마시는

성공적으로 보이는 행사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컵등 만들기’를 지도하던 백양사 포교국장 지정 스님은 “템플스테이가 가진 영향력에 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며 “또 이번 템플스테이 홍보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템플스테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산중 사찰이 많고 도심 사찰이 없어 포교에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현대인들은 자아실현의 높은 욕구가 있고 재충전의 장소에 목말라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산중사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템플스테이는 전략적인 불교 유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템플스테이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 잠재 수요층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여름 더위에 지쳐 드러누웠던 원두막처럼 지친 마음을 식혀주는 템플스테이. 이번 박람회에서도 증명됐다. 한 잔 차를 놓고 도반과 마음을 나누고 물소리로 머리를 맑히는 산사에서의 하루는 사람들에게 절실한 것임을.

보고 싶은 ‘친구’처럼 불교포교와 수행의 발원지로 새롭게 태어날 템플스테이를 기대하는 마음만으로도 봉사자들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던 땀이 사라지고 있었다.

박선주 기자



## 업장소멸 법륜대(운장대)안에 금강경 차곡차곡!!!



지금 수미단 좌우 법륜대 안으로 금강경(1,080권)을 봉안하는 불자의 손길이 연이어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석문의범과 전생록에 기록된 개개인의 전생의 목은 빛을 해탈하기 위하여 사람마다 각각 다른 금강경을 법륜대에 각각 다른 숫자로 봉안하여 직접 돌리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특징**

1. 대한민국 수제품으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부처님 한 분 한 분 1,080분의 명찰을 특수 투명 케이스에 넣어 걸 수 있으며, 안으로는 1,080권의 금강경(소경책)을 봉안할 수 있어 사찰경제 걱정없는 작은 천불전이 되는 다목적 법륜대입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1-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